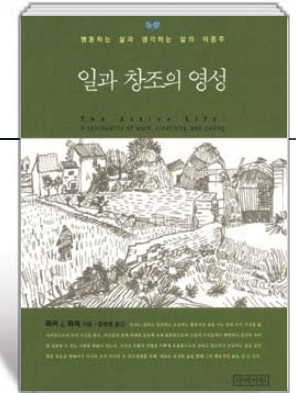


파커 파머의 일과 창조의 영성

◎ 박영주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장, 아신대 교수)



파커 J. 파머 저 | 홍병룡 역 | 아바서원

지난 연말, 서점에서 파커 J. 파머의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신간을 발견했다. 평소 좋아하던 저자라서 잠시 집었다가 “어차피 나는 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걸!” 한숨을 내쉬며 열어 보지도 않고 내려 놓았다. 서평 의뢰가 없었다면 이 책을 이렇게 다시 찾아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파머의 모든 책들에 대한 열렬한 독자였던 내가 유독 이 책은 지나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책 제목에 사용된 ‘영성’이란 단어가 주는 선입견인 듯하다. 전통적 유교 사회와 보수 기독교 문화 속에서 독신 여성으로 살아온 필자에게는 감추어진 열등감 혹은 자격지심이 있다. 천성이 외향적이고 무사태평이어서일까? 매사에 밝고 활발하게, 성취 지향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름 긍정적이고 건전한 자아상을 발전시켜왔음에도, 늘 한편으로는 ‘나만다’, ‘깊이가 없다’, ‘세속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웠던 것 같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자에게 회피하고 무시하는 전략이었다. 영성이라는 영역은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계의 가치라 여기고 아예 발도 내디머 보지 않았던 것이다. 나에게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과는 분리된 고요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신성한 것으로 낮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이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좋아하

는 작가의 신간을 대하는 반가움마저도 애써 외면하며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 했나 보다.

그러나 나도 영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작은 소망이 이 책으로 나를 이끈 것 같다. <일과 창조의 영성>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활동적인 삶이 영성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세상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듯 살아간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기도 한다. 파머에 따르면,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활동하는 동안 내면의 건강은 점차 악화된다. 어떤 이들은 현실 도피만이 내면의 질병에서 회복되는 길이라 믿으며 영적인(관조적인) 세계로 빠져든다. 많은 영성 서적들에서 행동의 세계는 애고와 권력의 영역으로, 관조의 세계는 빛과 은혜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있다. 그래서 균중들의 심리는 외적 행동보다는 내적 활동, 소리보다는 침묵, 상호 작용보다는 고독, 활기보다는 평온을 따르려는 성향이 크다. 그런데 파머는 두 극단적 삶의 양식 사이에서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며 균형을 잡으라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조와 활동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

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온전성, 그리고 안녕을 잃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소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진정한 영적 탐구를 통해 우리는 ‘살아 있음의 환희’를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파커 J. 파머는 이렇게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며 사는 활동적 삶의 세 가지 양상으로, 일, 창조, 보살핌을 소개한다. ‘일’은 외적인 필요나 요구 때문에 취하는 행위이며, ‘창조성’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일이다. ‘일’이 우리가 세계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면, ‘창조성’은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보살핌’은 이미 생명을 가진 어떤 것을 양육하고 보호하거나 치유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행위이다. 필자가 영성이라는 말 자체에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섰듯, 사람들은 실패의 가능성이나 실패의 증거들을 무시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 고립을 자초할지 모른다. 파머는 열심히 일하고 창조하고 보살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와 시를 소개함으로써 행동과 관조가 통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그중 다음 두 이야기가 큰 울림으로 남는다.

파머는 3장에서 활동적인 삶이 어떻게 관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장자의 “활동적인 삶”이라는 역설적 산문시를 통해 설명한다. 2천년 전 인물인 장자는 휘돌아치듯 활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신랄하게 조롱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대상의 세계에 갇힌 죄수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은 대부분 자유롭고 독립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작용(reaction)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하고 질문한다면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현대인들이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지 궁금하다. 파머는 우리의 활동이 영혼 내부가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능동적 삶이 아니라 반작용적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장자는 사람들이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찾았다고 비판한다. 장자의 산문시에 묘사되어 있는 이들은 자아를 특정한 행동들과 동일시한다.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 자신의 생명력을 의존한다.

“강한 남자는 들어 올릴 것을 찾는다. 용감한 여자는 용기를 보여주려고 비상사태를 찾는다.”

“

‘칼을 휘둘러 싸울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검객’,
박탈감을 조장하여 필요도 없는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는 ‘광고’, ‘미덕을 보여줄
필요에 의해 선을 행하는 모습’ 등 모두 삶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변질시키는 거짓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professional)라 불리는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 높은 기준, 섬김의 윤리, 개인적 희생 등을 갖춘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장자는 그런 그들을 비싼 값을 지불할 만큼의 능력을 개발하게 위해 긴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조롱조로 정의한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소비했던 시간과 돈, 그리고 젊음이라는 에너지를 씹쓸하게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다. 문제들이 바닥나지 않도록 모든 전문직 단체의 회원들이 자리보존을 하려고 조용한 음모를 꾸민다. 어쭙잖은 전문 영역 하나로 교수라는 직책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 교육지책들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바보들이 북적대는 시장이 없다면 장사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장자의 산문사에서 지적하는 반작용의 삶은 사물의 본질을 어긋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성취적인 거짓 신념으로 행동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거짓을 실존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된다.

‘칼을 휘둘러 싸울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검객’, 박탈감을 조장하여 필요도 없는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는 ‘광고’, ‘미덕을 보여줄 필요에 의해 선을 행하는 모습’ 등 모두 삶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변질시키는 거짓 환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활동적인 삶은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둡기만 할까? 파머가 제시하는 돌파구는 전문가(인생의 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에 의하면 전문가는 본질적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크고 지혜로운 지면의 실재, 감춰진 온전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자기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활동하고 만들어내는 삶의 영역들이 당초에 우리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원 제작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완전한 자립이라는 환상을 포기하고 우리의 한계와 의존성을 인정하며 인생이 주는 선물을 고맙게 받으면, 희망찬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자의 위치를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제조하지 않은 원재료를 선물로 받았고, 이 재료가 취할 수 있는 모양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도 선물로 받았다.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는 물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제작 작업은 더 이상 절망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처럼 제작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령 받고 초대되었다(창 1:26-28).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거짓 환상을 좇느라 분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활동적인 삶이란 원재료는 물론 일할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력이 넘치는 창조적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자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사셨던 예수께 ‘활동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파머는 7장 “빵과 물고기: 결핍인가, 풍요인가?”에서 적극적인 활동 중 보여주신 예수님의 관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극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주한 삶의 외중에 관조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관조와 행동을 마치 일과 휴가를 나누는 식으로 분리할 수 없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일해야 할 때는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활동적인 행동의 과정 중에 관조할 수 있도록 이끄셨는지 증언해준다. 파머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정심은 행동의 성격을 반사적이 아닌 반응적으로 만든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군중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양식이 존재함을 가르치기 위해 행동하였다.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갖고 있는 것, 당장 쓸 수 있는 선물과 자원 속에서 풍요의 가능성을 바라보도록 이끌었다. 예수님께 관조란 홀로 조용히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충만한 공공연한 사건이었다. 참된 관조란 그저 행동을 멈추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성육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파머는 강조한다.

필자도 활동적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현존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한다는 죄책감으로 위축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다. 내 속에서 ‘활동적인 삶의 영성’을 향한 에너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가 보다.



박영주 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교수이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중앙기독교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현장 경험을 하였으며,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에서 MS in Education,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기독교학교 리더십으로 Ed.D를 취득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태국 및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의 기독교 교육 실천을 통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